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 전남도 무형유산 지정

전통 잇기 위한 수백 년 간의 노력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아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가 전라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라남도도가 이번에 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는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대춘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마을제다. 연초 정월 보름에 진행되는 정월 초사흘날부터 마당밧기를 하고 열나흘날 별신제를 지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암 대춘별신제 상쇠 계보는 박석일(朴昔日, 1840년생), 신명휴(申明休, 1906년생), 이광열(李光熱, 1929년생), 신경식(申敬植, 1946년생)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마을에서 유래되고 있는 별신제를 당골출신인 박석일이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대춘 마을 답을 경작하거나 마을의 '창고지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박석일이 신명휴에게 예능을 전수했고, 현재는 신경식 상쇠가 있고 있다. 또한 박석일은

인근 점암면 사동마을로 이주하여 최동신 등에게 예능을 전수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점암 대춘별신제는 제례를 위해 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의례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마을 제사와는 달리 신이 마을에 좌정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별신제 때 신을 모셔 와 좌정시키고 제를 마치면 다시 신을 보내드리는 순서이다. 혼맛이 절차인 청신, 제사를 모시는 오신, 보내드리는 송신의 순으로 순서가 명확하다. 또, 별신제의 제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농악으로 행하기 때문에 농악 역시 절차와 가락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점암 대춘별신제와 함께 보유자로 인정받은 신경식(1946)은 별신제 4대 상쇠로 대춘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어렸을 때부터 마을 농악에 관심을 가졌고, 본격적으로 별신제를 주관했던 것은 23세 무렵이다. 마을 농악



에서 벗어나 지역축제로 승화하기 위해 2000년 점암별신굿전수보존회를 창설해 전통을 잇는 역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7년과 2008년 남도문화제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수백 년 지켜온 전통이 지역축제로 다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점암 대춘별신제 지정으로 우리 지역 다수의 무형유산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군민 숙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본격 추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목표

전남 함평군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며 문화 인프라 확충과 군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나선다.

함평군은 6일 '군민 숙원 사업인 '함평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함평군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사, 계약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함평군 문화예술회관은 총사업비 279억 원(도비 20억 원, 군비 259억 원)이 투입되며, 함평읍 화양근린공원 내 총면적 2,79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398석 규모의 공연장, 전시관, 주민문화센터 등이 조성되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그동안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했던 함평군에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함평의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무더운 여름, 영화로 쉬어가세요" 강진영화관 군민들로 문전성시

강진영화관이 운영 중인 '강진 영화 보는 날'이 지난 5일 28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달 6월 6일-7일 이틀간 진행된 첫 행사(284명 참여)와 유사한 관람객 수를 단 하루 만에 기록한 것으로, 영화관에 대한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진 영화보는 날'은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

하는 상설 행사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명절에 강진영화관에서 운영된다. 여기에 매점 팝콘·음료세트 2천원 할인 등이 더해지며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7월부터는 '2+1 관람 이벤트'도 새롭게 도입됐다. 유료로 영화 2편을 관람할 경우 1편은 무료로 관람 또는 매점 쿠폰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중심으로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고 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진영화관은 시원한 실내에서 여유롭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피서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더위를 피해 영화를 즐기려는 군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화관은 단순한 상영관을 넘어 지역의 여름철 대표 문화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다음 '영화 보는 날' 행사는 오는 8월 2일 토요일과 8월 15일 금요일 광복절에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주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 명절에 강진군민 50% 할인

6월: 영웅본색(9월), 신해태(12월)
7월: 시네마데(5월), 광복절(15일)
8월: 시네마데(9월)
9월: 개천절(9월), 시네마데(6월), 추석(9-10일), 한류보(9월)
10월: 시네마데(15일)
11월: 시네마데(15일)
12월: 시네마데(15일), 광복절(25일)
※ 영화 관람 1회 이상 필요(카드) ※ 30명 한정
강진군 문화체육관광과 | 061-452-7718 | 강진영화관 홈페이지

화순군, '미술교실 수채화반' 2강좌 수강생 모집

'초·중급반 2개 강좌 운영, 군민 대상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화순군(군북구 군수)은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미술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미술교실 수채화반' 2강좌 초·중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예술 창작의 즐거움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생활 속 예술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7월 23일(수)부터 12월 17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교육창작실에서 진행된다. 초급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중급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각각 운영되며, 반별로 총 22회씩 구성된다. 수업은 수채화 분야에서 활동해 온 실상호 강사가 맡아 체계적인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급반은 수채화에 처음 입문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물감과 도구의 기본적인

인 사용법, 색 혼합 및 채색 기법, 간단한 정물 및 풍경 표현 등 기초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반면 중급반은 기본기를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명암과 원근법, 주제 해석과 구도 설계, 다양한 표현 기법의 실습 등 한층 더 심화된 창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수강 신청 기간은 7월 11일(금)부터 7월 20일(일)까지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http://sbart.or.kr>) 공지 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신청서는 7월 11일 신청 당일 오전 9시부터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화순읍 진각로 249-8)에 선착순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2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전남 진도)에서 (사)한국여성국악예술협회 초청공연 여성국극 '선화공주'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사)한국여성국악예술협회는 77년 역사의 여성국극을 전승, 보존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여성국극 예술단체이다.

여성국극은 창극의 한 갈래로 여성들만 출연하는 연극의 한 장르이다. 여성 국악인들이 남장을 하고 공연을 한다는 점이 기존 창극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기리

원조 K-뮤지컬 여성국극 '선화공주', 12일 진도서 공연

에 방영됐던 드라마 '정년'의 소재로 소개돼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번 공연 '선화공주'는 1950년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여성 국극 대표 작품으로, 백제 왕자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의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어 사랑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백제 무왕의 설화이다.

서동 역할로 김금미 배우와 선화공주

역할로 박지현 배우가 열연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등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 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진도/오재명 기자

2025 국립남도국악원 북 무용상설공연
국악이 흥다
2025. 7. 12.
국립남도국악원 북 무용상설공연
국악이 흥다

국민 내로움 위한 정책사업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지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